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예술의 공간으로’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목적 및 배경

도봉구는 서울시 최북단에 위치한 자치구로, 경기 북부와 서울 동북부를 연결하는 관문지역에 해당한다. 구 전체 면적의 50%가 녹지지역, 42%가 주거지역이고, 아파트 면적의 비율이 25개의 서울 자치구 중 4번째로 높기에 도봉구를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들로 656

전 화 02-2091-4813

팩 스 02-2091-6248

이메일 fungus1@korea.kr

또한, 위치적인 요인 때문인지 도봉구는 서울의 다른 25개 자치구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도봉구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울 아닌 서울, 도심 속 시골에 온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한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보여진 도봉구의 모습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히 발전되거나 변화하지는 못한 지역. 그래도 도봉구는 자연과 어우러진 사람 좋고 공기 좋은 곳이라 '30~40년은 살아야 도봉에 살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착민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봉구에서는 좀 더 살기 좋은 마을,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 2011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시작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며 내가 아닌 우리의 소중함을 배웠고, 살면서 불편함을 느낀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 현안문제에 대한 역량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마을만들기·거버넌스 과정을 거쳐 주민들은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스스로 의제를 제시해 논의하고, 행정에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계획에서 실행까지 책임지는 지역의 거버넌스 자산이자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어낼 주체로써 성장할 수 있었다.

[대상지 현황]

서민들의 삶이 어우러졌던 '다락원' 옛터

본래 대전차방호시설이 위치한 '다락원'은 도봉구와 의정부가 맞닿는 도봉산 기슭에 위치해 조선시대에 상인들과 서민들이 어우러져 큰 시장을 이룬 장소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역원조의 기록에서는 해촌과 덕해원을 같이 소개하였던 바, 이는 당시에도 해등촌면 지역이 동북 지방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라 요충지에 위치한 해등촌면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하여 사상 도고(私商都賈)들이 이곳 누원점으로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산·철원 및 서울의 이현·칠패·경강 상인들과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조선 시대 [朝鮮時代]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발췌).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의 물건들이 서울로 반입되기 직전, 물건이 집하되는 중간상인들의 거점이었던 '다락원'은 교역의 중심으로서 상점들이 생기고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락원터 표시석
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서울을 지키던 '대전차방호시설'! 그러나...

경기도와 강원도 철원을 연결하는 길목이라는 지리적 특징은 도봉구에게 시대적 아픔과 긴장감을 주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틀 후인 6월 27일 10시, 도봉구는 당시 북한군이 탱크로 남침을 할 수 있는 서울의 진입로였다. 그 결과 유사시 북한군의 서울 진입을 막기 위해 1969년에 도봉구 도봉동6-5 일대에 5개동의 대전차방호시설이 설치되었고, 설치된 군사시설 위에 군인 등 관련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민아파트가 2층부터 4층까지 건축되었다.

시민아파트는 건립 후 20년이 지나면서 건물 자체의 부실함

및 노후화로 인해 2004년 1월, 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층에서 4층까지의 주거 부분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고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1층부는 역사적 장소성으로 인해 존치하게 된다. 시민아파트가 철거된 이후 대전차방호시설은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도봉구의 경제적·상업적 중심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었기에 활용도 또한 낮다고 여겨졌다. 그 결과 사람의 접근이 끊어진 대전차방호시설은 이후 12년 동안 방치되었고 슬럼지역·우범지역으로 악화될 상황에 놓이게 되어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지역의 애물단지가 된 대전차방호시설을 바꾸기 위해 도봉구의 가장 큰 자산인 시민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사업내용

지역의 문제! 민관이 함께 논하다!

2014년 7월 5일 도봉구청장과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평소 관심 있었던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대전차방호시설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음을 민관이 상호 확인하게 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민선 6기 이동진 구청장은 그동안 대전차방호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행정적으로만 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토로하였다. 이에 간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현장을 직접 확인 후 해결



도봉구에서 의정부를 거쳐 철원까지 이어지는 육상로



대전차방호시설 위치도



철거 전 사진(2003. 최승렬)



철거 후 모습(2014.최소영)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현장에서 확인한 대전차방호시설은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 쌓여 흉물스런 존재로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 함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골칫덩어리가 아닌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한 듯 한껏 기대에 차 올랐다.

그동안 행정적 어려움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대전차방호시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공간을 재생해 볼 것을 시민들이 제안하였고 구청장 역시 그 제안을 받아 들여 행정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하였다. 시민들의 열정적 의지와 구청장의 적극협력으로 현장에서 ‘시민추진단’이 결성될 수 있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스스로 도시재생의 주체가 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추진단은 현장 중심의 활동과 민관거버넌스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본격적인 공간개선 활동을 위해 시민추진단은 현장 탐방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생태, 건축,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초대하여 대전차방호시설의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고 꿈꾸었다. 50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는데 그때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은 공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였고 그 매력에 푹 빠져 가능한 활동범위 내에서 각자의 재능을 내어 주며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모아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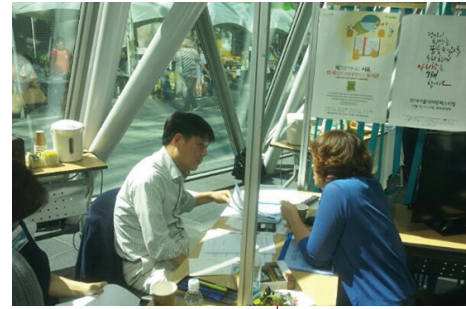
시민과 행정! 그리고 군부대와 손잡다!

막상 시민추진단 활동을 통해 공간재생을 위한 기획과 제안은 만들어 왔지만 여전히 예산 확정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전차방호시설의 소재는 도봉구이고 토지 소유는 서울시, 건축물은 국방부의 재산이라 도봉구 자체 예산으로만 마련하기에 어려운 일이었다. 기획은 만들

어가는 자에게 온다고 했던가? 다행히 그해 9월 서울시에서 시민정책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 중 시정에 반영할 좋은 정책으로 채택이 되면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시민추진단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현장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시장실을 열고 시민들로부터 제안된 내용을 정리하여 정책박람회에 제출을 하였고 그해 12월 서울시 예산 26억5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예산이 확보된 대전차방호시설은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시민추진단은 공간 구성을 위해 그동안 모아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건축과 구청 담당자에게 제안을 하였다.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공모를 실시하였다. 보통의 경우 설계 부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수준에 그치지만 대전차방호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간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설계 부분에 담도록 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민과 관이 또 한 번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자는 시민추진단의 의견에 행정 담당공무원이 외교부와 연계하여 무상으로 '베를린 장벽'을 기증 받는 성과를 이뤄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인 군부대와의 협의가 남아 있었다. 대전차방호시설을 재생하여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버넌스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민과 관만의 협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군사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군과의 협의가 필수 조건으로 진행되어야만 했다. 도봉구는 시민이 바라는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1년에 가까운 긴 협의기간을 거쳐 쉽지 않은 논의를 진행했고 2016년 12월 1일 서울시, 국방부, 도봉구가 함께 군사시설 공동활용협약식을 개최함으로써 대전차방



시민정책박람회 참가(서울시청)



시민정책박람회 참가(서울시청)



설계공모 당선작 (도봉구청 제공)



업무협약식

호시설 공간재생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4일 드디어 착공이 이루어졌다. 오는 2017년 10월 31일은 대전 차방호시설이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도시를 문화로 지키는 평화문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사업평가와 과제

2014년 7월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사업은 오는 2017년 10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31일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첫째,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제안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였다. 방치된 군사시설물이 인근지역을 슬럼화 우범지역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있었고 이들이 의제선정 및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추진단을 결성하였다. 이후 시민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전문가와 지역 자원들과 함께 공간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정식으로 행정 측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예산을 확보하고 민·관·군·학 간의 수습 차례에 걸친 협의에 참여하는 등 초기 제안부터 실제적인 실행단계에까지 거버넌스의 주도적인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발휘하였다. 2016년 12월 1일에 이루어진 국방부와 서울시, 도봉구와의 군사시설 공동 활용 협약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에 의한 뒷받침 없이 행정 측과 군부대만의 논의로는 그 실현이 어려웠을 것이다. 2017년 10월 평화문화진지가 완공된 이후에도 그 운영과정 등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는 계속될 것이다.

둘째, 관내에 위치한 군용시설을 부수거나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을 실현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비용적인 효율성과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전국 230여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 중 군사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155개라는 점을 생각하면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은 유사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협치·거버넌스 구성원의 다양성이다. 즉 국내적으로는 민·관·군·학과의 협치, 더 나아가서는 외교부, 통일부, 주독대사관 등 국내의 구성원뿐만이 아닌 국제적인 단위의 구성원과 연계하여 협치를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평화문화진지에 상징적인 조형물로서 설치될 예정인 베를린장벽 등은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치를 통해 이루낸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을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계획이다.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을 위해 민관이 함께한 지난하고 길었던 3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관심과 활동, 시민의 활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 협조와 지지를 해왔던 자치구 그리고 행정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담당공무원들의 애씀이 기본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전차방호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과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3년간 행정과 시민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역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협력적 파트너가 되어 활동했고 그 결과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이루어온 모범적 재생담을 좀 더 많은 지역에서 나누고 싶은 도봉구의 마음이 널리 펼쳐지길 바라본다.